

CT
268.00P
09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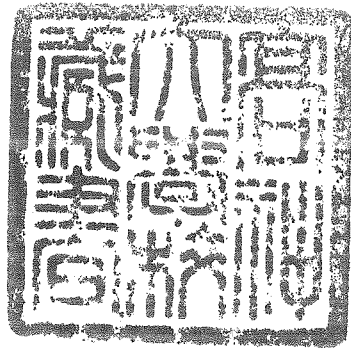
서울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1996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종교개혁자의 기독교 교육사상 연구

-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



M. Div. 과정 실천신학전공

이 미 영

 고신대학교



DM0 1004036

종교개혁자의 기독교 교육사상 연구

-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 이 정 호 박사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1997년 월 일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과정 실천신학전공

이 미 영

이미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1997년 월 일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목 차

I. 서 론

A.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B. 연구의 방법 및 절차.....	4

II. 루터와 칼빈의 이론적 배경

A. 시대적 배경.....	6
B. 신학적 배경.....	11
1. 루터의 신학사상.....	11
1) 인간관.....	11
2) 성경관.....	15
3) 교회관.....	19
2. 칼빈의 신학사상.....	24
1) 인간관.....	24
2) 성서관.....	28
3) 교회관.....	31
C. 신학사상이 교육사상에 미친 영향.....	35

III. 루터와 칼빈의 기독교 교육사상

A. 루터의 기독교 교육사상.....	42
----------------------	----

1. 교육 목적.....	42
2. 교육 내용.....	47
3. 교육 방법.....	52
B. 칼빈의 기독교 교육사상.....	57
1. 교육 목적.....	57
2. 교육 내용.....	58
3. 교육 방법.....	61
IV. 루터와 칼빈의 성서교육.....	65
V. 결 론.....	67
*. 참고문헌.....	71

A.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교회는 복음을 언제나 새로운 인간과 사회에 이해시키고 시대적 삶의 표현 형식들로 해석하였는데,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교육이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언제나 선포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¹⁾ 제임스 스마트(James D. Smart)는 그의 저서 「교회의 교육적 사명」에서 교회의 필수적 과제요 본질을 가리켜 ‘교육하는 일’²⁾이라 하였으며, 오스머(Richard Robert Osmer)는 저서 「A Teachable Spirit」에서 말하기를 ‘교회는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교수의 기능은 교회의 본질(essence)의 한 부분이다’³⁾라고 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교육, 이는 바로 주(主)로부터 받은 교회의 사명인 것이다.⁴⁾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으로서의 교육은 1780년,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가 영국의 그로우스터(Gloucester)에서 ‘일요일학교(School of Sunday)’를 창설한 이래 ‘일요일 학교’

1) 오인탁, “한국교회 100년의 종교교육”, 「기독교 교육론」(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1), pp. 15-16.

2) 고용수, “교회 교육론”, 「기독교 교육론」(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1), p. 149.

3) Richard Robert Osmer, A Teachable Spirit(Westminister: John Knox Press Louisville Kentucky 1990), p. 93.

4) 마태복음 28:19-20.

가 '주일학교(Sunday School)'로 '주일학교'가 다시 '교회학교 (Church School)'로 변신해 오는 동안 점차 교회학교로 제한 또는 국한됨으로 그 중요성과 내용이 점차 약화되어, 오늘날에는 겨우 '교회학교'에서나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⁵⁾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는 교회교육이 교회학교 교육일 뿐 아니라 기독교적 이념을 갖는 모든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 가정, 사회등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균형있는 교육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교회교육은 신앙과 조화된 전인적 인간을 지향하고 있으나 교회는 삶과 연결된 전인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했다.⁶⁾ 이는 교회교육의 목적에 있어서 학습자의 삶과 관련이 없는 교리중심의 교육과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부재로 삶과 연결된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회가 교리와 형식의 종교, 신비적 내지 개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성서 교육의 문제라 할 수 있다.⁷⁾ 교회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서에서 교회의 기초를 찾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 원천을 얻을 수 있다.⁸⁾ 때

5) 로버트 W. 린, 엘리오프 라이트, 「주일학교 역사」 신서균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p. 24

6) Craig. R. Dykstra, Vision and Character (New York: Panlist press, 1981), p. 186.

7) 차풍로, "신경건주의 운동으로서의 현대교육 문화이해 만남의 신학의 가능성", 「신학과 세계」 (1975.4), p. 94.

8) Iris V. Cully, Im parting the word (Philadelphia: Wesrminster press, 1962), p. 139.

문에 교회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서 출발한다.

교회는 이 사실을 인식하여 성서교육을 강조해 왔으나, 성서교수-학습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곧 성서내용 중심과 성서생활중심의 대립된 갈등이다⁹⁾. 즉 성서내용을 전달하는 경향과 성서내용 보다는 학습자의 삶과 경험을 중심에 두는 경향 사이의 갈등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러한 이분화의 커다란 괴리에 놓여 있는 오늘날의 교육적 상황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중세를 지배하였던 교회가 삶과 문화의 다른 측면 뿐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그 지배력을 상실해 가고 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 종교개혁 운동은 서방 역사에 있어서 제2의 인간 해방 운동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인간의 개성 및 성(性)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 뿐 아니라 종교, 교육, 제도적 측면에 까지 이루어진 철저한 대변혁이었다¹⁰⁾. 종교개혁이 중세 암흑시대의 여명이었다면 이러한 종교개혁의 결실들은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적 실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¹⁾ 즉 초대 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당시의 개혁자들이 개혁의지의 방안으로 삼은 것은 바로 교육이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과 기독교 교육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오늘날의 교회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16세기 종교개혁가의 교육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

9) 이정효, 「현대성서교육론」(서울: 성광문화사, 1996), p. 203.

10) 배한국, 「루터와 종교개혁」(서울: 컨콜디아사, 1984), p. 55.

11) 차석기, 「서양교육사」(서울: 집문당, 1981), p. 97.

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루터와 칼빈의 신학사상에 근거한 교육사상을 재인식함으로써 이들이 주장했던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들속에서 여러 교훈들을 살펴 보려고 한다. 또한 루터와 칼빈의 성서관을 통해 나타나는 성서교육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천적인 면을 고찰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가 크리스천 삶에로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서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B.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목적을 위해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자, 신학자로서는 많은 부분에서 연구되어졌으나, 교육개혁자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진한 상태라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필자는 루터와 칼빈의 교육학적이고 신학적인 여러 종류의 문헌들과 관계문헌, 서한, 잡지, 선행연구 보고서 등에 있는 문헌들 중에서 교육적인 면을 조사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하에 우선 II장에서 루터와 칼빈의 활동할 당시의 시대적, 사상적 배경을 살폈다. 이는 이들의 교육사상이 일차적으로 종교개혁적 실천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교육적 개혁을 전개해 나갔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루터와 칼빈의 신학사상을 다루었다. 신학적 가정은 기독교 교육의 성격과 목적을 결정하는데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 장, 방법등을 선정하는데 그 이유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교육의 대상인 인간과 교육의 주

요내용으로서의 성서, 그리고 교육의 중심 장으로서의 교회를 살펴기 위해 이들의 신학사상 중 인간관, 성서관, 그리고 교회관을 고찰하였다.

III장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루터와 칼빈이 주장했던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살펴보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을 사랑하게 함을 교육의 목적으로 고찰하고 성서를 교육내용의 최우선으로, 그리고 기타 교양 과목을 부차적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이를 실현할 교육의 장으로 가정, 교회, 학교와 교육의 방법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각 교육의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루터와 칼빈의 교육사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서 현대 교회교육에 관해 몇 가지 제언을 덧붙였다.

12) 이정효, “기독교 교육신학”, 「기독교교육개론」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연구소 편(서울: 기성출판부, 1994), p. 3.

II. 이론적 배경

A. 시대적 배경

독일에서의 종교개혁이 다른 지역보다 더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개혁운동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각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유가 덧붙여져서 전개되어 나갔기 때문이다.¹³⁾

당시 정치적 이상은 신성로마 제국을 주축으로 하는 세계국가 수립이라는 국가적 통일이었다. 이러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역대 군주들은 대대로 이탈리아 경영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봉건 제후들에게 자기 세력 확장의 기회를 주게 되어 지방 분권적 봉건 국가체제를 굳히게 되었다. 따라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권은 유명 무실에 가까울 정도로 그 권한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다가, 콘라드 4세(Konrader IV, 1250-1254)이후에는 왕통이 끊어져 소위 대공위시대를 초래하였고 대제후들은 제국의 관직과 영토를 세습하고 영방국가를 형성하여 독일내에는 300이상의 영방국가 탄생하였다.¹⁴⁾ 이에 강력한 국민국가를 원하는 요청이 대두 되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독일의 경제적인 상황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세봉건제도 아래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 오던 장원제도의 장원경제가 몰락하고 신흥 산업자본주의가

13) 차하룡, 「서양사총론」 (서울: 탐구당, 1977), p. 296.

14)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3), p. 51.

대두되고 있었다.¹⁵⁾ 도시의 발생과 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상업이 점차 활기를 띠게 되면서 장원제도 하에서 농노와 다름없는 신분으로 예속되었던 농민들의 생활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는데, 대체로 종교개혁기까지 향상 일로에 있었다. 그러나 독일 농민들에게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였다. 당시 수입의 감소와 물가고에 시달리던 영방 제후들은 그들의 경제적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토지 영주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하게 되었고, 그러자 그 영향으로 농민들에게 새로운 년공과 부역이 부과되었다. 또한 교회의 대주교들은 로마 교황청의 지령을 받아 10분의 1세를 징수하여 누적되어 있는 부채를 갚는데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고자 면죄부를 판매하였다.¹⁶⁾ 교회의 창고는 속죄를 위한 헌금과 기부와 십일조 등으로 가득찼고, 더 나아가 교회의 제단을 만들게 되었다.¹⁷⁾

끝으로,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발화점이 된 그 당시의 종교적 상황은 세속주의에 빠져있었다. 그 첫번째로 교원의 부패를 들 수 있는데, 교황청의 행정은 부패하였고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식하고 비도덕적이며 경제적으로는 제왕보다 더 사치에 빠져있는 경우가 허다했다.¹⁸⁾ 또한 이들은 교직을 매매하고 여러 가지 면죄부를 판매함으로써 복음의 본질에 역행하여

15) 최문환, 「근대사회사상사」 (서울: 삼영사, 1977), pp. 1-2.

16) 홍치모, *op. cit.*, p. 54.

17) C. B.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 신청기 역(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0), p. 177.

18) W. 워커, 「세계기독교회사」, 강근환외3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p. 255.

돈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선량하고 무지한 민중의 재산을 사기해 가고 있었다.¹⁹⁾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보다 근본적인 종교적인 원인은, 바로 카톨릭 교회가 가졌던 신학적 입장, 즉 성례식의 중요성, 믿음이 선한 일의 의해 보상될 수 있다는 생각, 교직자에게 부여한 신의 권위에 대한 이견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앞서 일어난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게된다.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문화적, 교육적 부흥운동으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탁월성(the dignity and excellence of man)을 강조하였던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은 1470년대에 이르러 서구 전역에 확산되었다.²⁰⁾ 특별히 독일을 중심한 인문주의는 명상적이고 경건한 종교적 보편주의(religious universalism)의 특성을 가졌으며²¹⁾, 또한 유대교 및 기독교의 경전 연구를 통하여 성서연구에 자극을 주었는데, 바로 이 인문주의가 신비주의와 함께 루터의 개혁사상 형성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 요소들 중 하나였다.²²⁾

19) 류형기 편역, 「기독교 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4), p. 369.

20)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6), p. 146.

21) 홍치모, “독일인문주의와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지남」 (1975.10), p. 102.

(22)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컨콜디아사, 1983), p. 21.

홍치모, 「북구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서울: 성광문화사, 1984), p. 11.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렌조 발라(Lorenzo Valla)나 로이 힐린(Reuchlin)같은 인문주의자들은 성서의 원어를 연구하고 기독교의 진수를 성서에서 찾아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²³⁾ 로이힐린은 구약 히브리어를 연구하여 교회의 전통적 성서해석과 원어상 해석의 차이점을 찾아냈다.²⁴⁾ 이러한 영향으로 루터는 성서연구에 자극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루터는 기독교의 진수를 성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루터는 에라스무스(Erasmus)에게서도 영향을 받았는데, 에라스무스는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와 다른 것을 인식하여 성서적인 단순한 기독교로 돌아갈 것과 초대 교부 연구를 강조했다.²⁵⁾ 에라스무스의 역사적이고 언어적인 해석, 그리고 신학이 성서에 대한 언어적 연구와 역사적 연구위에 세워져야 한다²⁶⁾는 주장은 루터에게 큰 자극을 주었던 것이다.

칼빈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끼친 것 역시 인문주의(humanism)이다. 칼빈은 인문주의와의 만남을 통하여 고전이 가지는 심오한 사상을 발견하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 칼빈이 인문주의자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교양을 쌓기 시작한 것은 법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르레앙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터다. 칼

23) 이형기, *op. cit.*, p. 7.

24) 김성식, 「루터」(서울: 지문사, 1960) p. 33.

25) J. Atkinson, *The Great Light : Luther and Reformation* (Leicester: the Paternoster Press, 1968), p. 178.

26) E. G. Schweirt, *Luther and His Time* (Missouri: Concorda, 1950), p. 578.

빈이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 이미 에라스무스는 라틴어를, 로이힐린은 히브리어를 그리고 알린더(Aleander)와 볼마르(Wolmar)는 헬라어를 각각 가르치고 있었다.²⁷⁾ 칼빈은 이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인문주의자들과 넓게 교제하여 인생과 학문의 시야를 넓힘으로서 심오한 고전과 학문을 익혔다. 이로 인해 칼빈은 저술활동과 훗날 제네바시의 신정정치를 위한 자질을 갖추게 되었고, 중세 교권주의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루터와 칼빈은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루터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개혁가의 길을 걷도록 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질문, 곧 구원의 길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마음의 번뇌²⁸⁾가 출발점이 되어 성서연구를 시작했고 이 성서연구를 통해 당시 로마 카톨릭교회의 부패상과 교리적인 잘못에 대한 공격으로 그의 개혁운동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루터의 개혁운동은 한 개인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칼빈에 있어서는 당시의 인문주의를 통해 종교개혁의 근원을 보게 된다. 토마스 모어, 에라스무스에서 출발된 16세기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은 성서를 기독교 중심의 자리에 되돌려 놓으려는 운동이며, 성서는 신의 계시에 대한 지식의 독보적인 원천이며, 인간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성서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므로 종교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믿음과 의식면에서 루터보다 과격하

27) 홍치모, 「서구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p. 135.

28) W. 워커, op. cit., p. 256.

게 신약성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구조로 회복하고자 하였다.²⁹⁾

이러한 시대적 사상적 배경속에서 루터와 칼빈은 신학사상을 이루었는데, 다음장에서는 루터와 칼빈의 신학사상 중 교육사상에 영향을 준 인간관과 성서관, 그리고 교회관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B. 신학적 배경

1. 루터의 신학사상

1) 인간관

루터의 인간론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즉 루터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존적 절망에 대하여 '인간은 나쁜나무로서 악을 의지할 뿐이다.'³⁰⁾고 말하면서, 인간의 죄악성에 대한 자신의 깊은 깨달음을 나타내 보였다.

(1) 루터의 자연인 이해

루터 자신은 '자연인'³¹⁾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

29) 윌리엄 A. 스코트, 「개신교신학사상사」, 김쾌상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p. 52.

30) Martin Luther, Luther's Work, ed. Jaroslave Pelikan, Lewis W. Spitz, and Helmut T. Lehmann, Vol. 31(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1960), p. 9. (이하에는 Works로 표기한다)

나 루터는 은총과 신앙이전의 인간, 곧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인간의 정체를 그의 여러 작품에서 언급하고 있다. 루터의 자연인 개념에 대한 특징은 전인적 인간이해(全人的 人間理解)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루터의 인간구조의 이해, 즉 자연인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 점은 중세후기 스콜라주의 신학자들과 르네상스 인문주의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를바가 없다. 다만 루터의 인간론이 지니는 특징은 몸과 영의 관계를 보다 전인적으로 이해하였 점이다.³²⁾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해>(1519)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나는 바보스럽게 육체와 영과 정신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나는 정신과 육체를 전인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영이라고 할 경우에도 나는 그것을 전인적으로 이해한다.”³³⁾ 여기서 루터는 인간의 인격 구조의 요소로서 영과 육의 구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해명에 있어서 전인적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전인적으로 육적이 될 수도 있고, 전인적으로 영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하여 전인적으로 육적인 상태, 곧 타락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³⁴⁾ 따라서 자연인 자체는 죄인이다. 이 명제는 루터의 인간론의 출발점이요, 핵심이다.

31) 본문에서 자연인이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모습을 말한다.

32) Martin Luther, 「루터선집」, 지원용 편, 제4권(서울: 컨콜디아사, 1982), pp. 72-79.(이하에는 「루터선집」으로 표기한다)

33) Works, 27 : 363.

34) Works, 40 : 323.

(2) 죄인으로서의 인간

루터는 바울의 로마서를 토대로 하여 원죄란 “.....전체인간(내적인 인간, 외적인 인간, 몸과 영혼전체)의 기능을 올바르게 발휘할 능력이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³⁵⁾고 말한다. 루터는 이 원죄로 인해 로마서 9:11-13을 주석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원죄의 보편성을 말한다. 또한 루터는 원죄를 단순히 부분적인 약점이나 죄가 아닌, 전인간(영과 육, 지성과 의지를 포함하여)의 완전한 타락으로 보았다.³⁶⁾ 루터는 시편 51편을 주석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큰 지혜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의 신학자들처럼 ‘죄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말, 행동, 혹은 사상이다.’라고 가볍게 말하지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편에 근거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평생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죄를 규정하라. 그와 같은 뿌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³⁷⁾

여기에서 루터의 고민이 시작된다. 그것은 인간이 이와같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구원의 문제였다.

35) 「루터선집」 제4권, p. 247.

36) Ibid., p. 217.

37) Works, 12 : 307.

(3) 의인으로서의 인간

그는 시편 연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였다.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는데 그 까닭은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³⁸⁾라고 한다. 즉 인간은 죄인된 몸으로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죄문제의 해결, 곧 의로움을 얻게 된 것이다. 이 의(義)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죄사면의 선포, 즉 우리의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 주시는 선언인 것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루터의 “전가된 의인”이다. 따라서 의롭게 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기 때문이다.”³⁹⁾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루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의인됨이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가에 의존한 것이라면, ‘의인된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⁴⁰⁾ 그러므로 의인된 사람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의인이

38) 「루터선집」 제4권, p. 54.

39) Works, 34 : 152-153.

40) 「루터선집」 제4권, p. 47.

아니나, 의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움직임 혹은 여행의 출발 단계에 있다.⁴¹⁾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에서 의에로의 순례의 길이며, 이 점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다 된 존재(Geworden-Sein)가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존재(Werden-Sein)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성서관

종교개혁 이전에도 성서를 중시하여 성서를 앞세웠던 사람들이 있었다. 존 위클리프(Jhon Wycliffe, 1320-1384)는 "성서는 교회의 소유이며 오직 교회만이 성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⁴²⁾ 보헤미야 지방의 프라하 대학교 총장이었던 존 후스(John Huss, 1360-1451) 역시, '성서야말로 교황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 신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궁극적인 권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즉 성서에 순종하지 않는 교황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⁴³⁾ 이는 권위를 교황에서 성서에 두는 권위에 대한 큰 변화였다.

성서의 중요성의 토대를 마련한 선구자들의 뒤를 이어 루터의 종교개혁 역시 성서를 유일한 권위로 삼는다. 교회사가 필립샤프(Philip Schaff)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발생 다음으로 역

41) Works, 34 : 153.

42) 유스토 L. 곤잘레스,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서울: 은성, 1990), p. 205.

43) Ibid., p. 209.

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 사건은 성 어거스틴이 그러했던 것보다 더 깊이 복음의 내용에 파고 들어갔다'고 하였다.⁴⁴⁾ 루터의 중요성이란 단지 종교개혁자라는 개신교 창시자로서의 비중을 넘어서서 개신교 핵심인 하나님의 영광사상과 성서의 절대권위 사상과 실존적 믿음에 의한 의인 사상을 어거스틴이후 근 천오백년 동안 상실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깨뜨리고 재발견한 데 있다.⁴⁵⁾ 로마 교회 교리와 전통과는 달리 종교개혁은 신앙과 생활의 원칙을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에 두었다. 즉 신앙과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를 성서에만 관심을 돌리므로 로마교회의 오류에서 벗어난 것이다.⁴⁶⁾

루터의 신학과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원한다. 그의 모든 종교적 경험과 신학적 발전도 말씀에서 나왔으며 말씀과 다른 것은 모두 제거되었다.⁴⁷⁾ 루터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써, 또한 '가장 활동적인 신(Deus actuosissimus)'으로서의 이 말씀을 영원토록 활동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재(Reality of God)'라고 말한다. 때문에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된다고 루터는 주장한다.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말씀, 다만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이다>(Das Wort, und das Wort ist das

44) Philip Schaff, Creed of Christendom, Vol I(New York: Harper Brothers, 1877), p. 204.

45) 휴 T. 커어 편, 「루터신학개요」 김영한 역(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1991), p. 19.

46) 정정숙, op. cit., p. 25.

47) Philip S. Waston, Let God Be God(Phiadelphia : Muhlenberg Press, 1949), pp. 149-150.

Mittel der Gnade Gottes)라고 하였다.⁴⁸⁾ 말씀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과 그의 활동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⁴⁹⁾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오직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루터의 이해를 살펴보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육신한 말씀’ 곧 그리스도를 말한다. “성서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누워 계시는 말구유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의 ‘말씀’을 발견하고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자체,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고 보았다.⁵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표현이신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불리운다.⁵¹⁾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말씀은 그 자신이다.⁵²⁾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양을 입으셨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과 증거인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과 친교를 맺으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늘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값없이 주어진 사랑이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서를 말하고 있다. 루터에게 있

48) Works, 14 : 509.

49) Roland H. Bainton, Here I Stand : A Life of Martin Luther (New York: Abingdon Press, 1950), p. 224.

50) 정웅섭,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1), p. 83.

51) Works, 11 : 140. ; 12 : 216.

52) 요한복음 1:1.

어 ‘하나님의 말씀’이란 용어가 성서 이상의 것을 의미하지만 루터는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함으로 ‘성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성서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인간성 가운데 숨겨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 같이 성서는 쓰여지고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⁵³⁾

셋째, ‘선포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성서안에서 성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의 선포 가운데서 인간은 말씀하시는 주님을 대하게 된다. 루터는 <말씀>과 <설교>라는 말을 교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 간의 특수관계를 설명한다.⁵⁴⁾ 이 말씀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일반 신자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공적 전도나 설교를 통해 말씀은 인간 가운데 힘있게 역사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주장한다.⁵⁵⁾ 또한 루터는 성서의 초점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내세운다. 즉 모든 성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졌으며, 성서가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인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⁵⁶⁾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권위를 말씀에 부여하실

53) 지원용, 「루터의 사상」 (서울: 컨콜디아사, 1961) p. 125.

54) Works, 48 : 148.

55) 도날드 디 머레이 편집, 「루터에게 듣는다」 윤정석 옮김 (서울: 두란노 서원,), pp. 40-41.

56) 시몬 키스트메이커 편, 「개혁주의 성경해석학」 김남식 역 (서울:

수 있으므로 루터에게 있어 성서권위의 궁극적인 근거는 성서의 그리스도 중심성이었다. 나아가 성서의 신적 기원과 그리스도 중심성 때문에 루터는 성서의 무오성을 강조한다. 루터는 어거스틴이 성 제롬에게 주는 편지를 인용, '성서가 무오하다는 것'⁵⁷⁾의 '성서는 잘못을 범할 수 없다'⁵⁸⁾고 자주 기술하기도 했다.

3) 교회관

루터 이전에도 15세기 말엽에 교회를 새롭게 보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 시도는 스콜라주의의 건조한 형식주의를 배척하려는 도미니크 수도단과 프란체스코 수도단의 실천적 경건이었다.⁵⁹⁾ 또한 윌리엄 오캄(William Ockham)은 “제도적인 개혁을 주장해서 교회 자신이 부패하거나 오류를 범할 때는 그 점을 누가 책임지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교회가 이를 개혁하는 책임을 져야한다.”⁶⁰⁾고 말함으로써 교회와 교황은 구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종교개혁 전까지만 해도 루터의 교회에 관한 관념은 당시 중세 교회관의 2대 지주였던 키프리안(Cyprian)과 어거스틴(Augustine)의 것을 따르고 있었다. 키프리안은 교회를 보이는 한 단체로서 사도 때부터 전승되어 오는 제도

성광문화사, 1980), p. 293.

57) 「루터선집」 제5권, p. 147.

58) Ibid., p. 148.

59) Hardd. J. Grimm, The Reformation Era(New York: The Hacmilliam, 1954), p. 52.

60) Ibid., p. 53.

밑에 있으며 감독들에게 계승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감독의 교회 곧 교황권을 머리로 한 기구로서의 교회를 의미했던 것이다. 이렇게 물려받은 루터의 교회관은 종교개혁 시기에 교황과의 논쟁이 있기까지 그의 관점으로 지켜져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루터의 견해도 1517년 10월의 95개조 사건 이후 1518년 10월의 “Augusburg신학논쟁”⁶¹⁾, 1519년 6월의 “Leipzig 신학논쟁”⁶²⁾을 거치면서 로마교회와 교리 그리고 교황청에 대해 반 로마적 결의를 갖게된다. 교황과의 논쟁에 있어서 교회에 대해 루터는 먼저, 고해성사는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둘째, 면죄부가 복음에 위배됨을 언급하고⁶³⁾ 셋째, 미사제는 잘못된 신관이 들어있는 의식이라고 주장한다. 끝으로 로마교회의 사법권 주장과 교회의 권위와 힘의 행사가 원칙적으로 성서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⁶⁴⁾ 이러한 상기한 모든 배경하에 루터는 새로운 교회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61) 이 논쟁은 루터가 파문을 당한 후 종교회의에 심판을 요청했던 때이다. 이 논쟁은 Augusburg Diet에서 교황청 추기경이던 Cajetan과의 논쟁이다. 여기서 루터는 성서에 입각한 자기신앙이 로마교회 교리와 일치될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고 로마교회와 결별을 결심한다. (W. Walker, 「기독교 교회사」 류형기 역(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2), p. 201.

62) Luter와 Ech와의 논쟁으로서 Leipzig도서관에서 역대 교황의 교서, 법령들과 Huss와 Wycliffe의 저술을 비교검토한 후 교황청의 오류를 비난하고 Huss와 Wycliffe의 개혁신앙을 좇는다. 이것은 루터가 로마교회와 최종적으로 결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 허긴, “루터의 개혁운동과 교회관 발전에 대한 고찰” 「침신논집」 제 7집 (1984. 4), p. 146.

63) 이장식, 「교회중심의 기독교 사상사 : 증세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9), p. 28.

64) Works, 2 : 77.

(1) 교회의 본질

루터의 교회관은 칭의에 대한 확신과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 즉 루터의 교회론은 의인론에서 출발한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선포되고 믿음 안에서 수여되는 것같이 교회도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성도들의 사귄에서 실제화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생명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다.⁶⁵⁾ 루터는 ”이 말씀을 교회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⁶⁶⁾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로마교황에 관하여“라는 글 속에서 루터는 교회를 ‘성도들의 교제’ 혹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본다. 이것은 교회는 결코 계층질서적 조직이 아니며, 어떤 법적 통치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즉 교회는 외형적인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며 그 모임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곧 교제를 말한다.⁶⁷⁾

(2) 교회의 사명

교회가 가져야 할 최대의 관심은 인간의 구원문제이다. 이것은 예수의 지상명령이며 직접모범을 보이신 것이다.⁶⁸⁾ 루터는 그의 바이마르 총서(W.A)에서 교회의 사명을 “교회는 암흑과 사망의 그늘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65) 배한국,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컨콜디아사, 1975), p. 206.

66) 이장식, *op. cit.*, p 217.

67)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서울: 장신출판부, 1984), p .12.

68) 지원용, “루터와 칼빈의 교회관”,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컨콜디아사, 1965), p. 222.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단순한 파이프(eitel roehren)'라고 말한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 인간 구원에 가장 우선적임을 말해주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교회는 그 은혜를 이루시는 한 도구로서 교회가 사용되는 것임을 암시해 준다.

두번째, 교회의 임무로 성도의 교제를 들고 있다. 루터는 개인주의와 무관심주의적인 것 그리고 너무 관념적이고 현 생활을 무시한 체 저 세상에 관한 것만 관심을 갖는 것에 혹평을 하고 성도간의 관심과 사랑을 주 사명으로 본 것이다.⁶⁹⁾

세째는 교회의 만인제사장직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제사직의 주임무로서 가르침과 예배,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⁷⁰⁾ 이러한 책임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곧 교회이며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다. 루터는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사랑을 통하여 이웃 안에서 산다. 신앙으로 자신을 이기면 하나님께 이끌리며 사랑으로 자신을 극복하고 그의 이웃과 사귄에 동참하게 된다.⁷¹⁾

네째는 현실참여이다. 루터는 그리스도를 믿어 한 몸이 되는 것이 세상을 떠나거나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뜻을 밝힌다. 비록 교회가 인간의 영적인

69) Works, 2 : 13-14.

70) Philip Schaf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Vol VII(New York: Harper Brothers, 1877), p. 25.

71) Works, 2 : 342-43.

문제와 미래의 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이 세상에 무관심 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세상가운데 존재하여 살아야 한다. 교회는 현실 속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루터는 주장한다.⁷²⁾

2. 칼빈의 신학사상

1) 인간관

칼빈은 인간이해를 인간편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이해로부터 시작한다.⁷³⁾ 그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인간을 이해하려고 한다.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자이며 주님이라는 성서의 근거를 기독교 강요에서 소개한다.⁷⁴⁾ 칼빈의 인간론의 목적은 이중적이다. 그 하나는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줌으로서 신자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신자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⁷⁵⁾

72)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p. 229.

73) John Calvin, Institution of Christian Religion, 김문제 역, 「기독교강요」 색인 1, 2, 3, 4. (서울: 헤민사, 1982; 이후로는 기독교강요를 Inst.로 표기한다.) Inst, I. i. 2. 그는 인간을 하나님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된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인간편에서 인간이해를 시도하는 인본주의적 입장을 거부한다.

74) Inst., I. i. 2.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며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이 필요한 존재라는 성서의 증언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의 인간이해를 전개한다.

(1) 인간의 창조속에서의 위치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만물을 정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부여하신 은혜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명상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찬미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속에서 영광되게 하시려는 것이다.⁷⁶⁾ 칼빈은 인간창조의 특징을 인간의 고귀성과 피조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하고 있다.⁷⁷⁾ 창조의 순서가운데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유익하고 행복하다고 예견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 모든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창 1:28) 영광스런 자리에 인간을 앉히신다. 이것은 “인간이야말로 고귀한 은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품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표본”⁷⁸⁾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칼빈은 인간이 땅의 먼지로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임을 의미하고 있다.⁷⁹⁾

성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창 1:26-27, 9:6) 하나님의 형상이란 처음 아담이 부여받은 그 완전함(wholeness)을 의미한다. 아담은 처음에 올바른 지력을 받았으며 감정을 이성으로 조화했으며 일체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다스리게 했던 것이다.⁸⁰⁾ 이 완전성이 의미하

75) Inst., I. xv. 1; III. i. 1f.

76) F. Wendel, 「칼빈의 신학서론」,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79), p. 185.

77)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복음주의 신학총서 27권(서울: 한신대학 출판부, 1982), p. 103.

78) Inst., I. xiv. 20.

79) Inst., I. xv. 1.

80) Inst., I. xv. 3.

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존엄성이며, 하나님과 같은 그 무엇이며, 인간을 타 피조물과 구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안에 있게 될 때 '일종의 무언의 대조 곧 사람을 다른 많은 것과 구별하여 모든 피조물위에 그를 높이는 것을 확신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인간의 높임을 '신적 영광의 거울'이라고 말한다. 즉 모든 창조물은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언중에 반사하나 인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것이다.⁸¹⁾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에 대한 태도로까지 확대해석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참으로 합당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이며, 이웃에 대한 사랑,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⁸²⁾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지적 능력을 가진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와 그 책임을 본다. 위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아래로는 다른 피조물에 대한 정당한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2) 타락된 인간

인간의 타락은 불순종에서 비롯되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증명할 수 있었던 기회를 오용하여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와 그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였다.⁸³⁾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의 이탈이며 하나님 형상의 상실

81) Inst., I. xv. 4.

82) Inst., II. ii. 12.

83) Inst., II. i. 4.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최초의 죄가 바로 원죄이다. 이 죄는 인간의 구성요소들의 단순한 부패와 악화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 니젤은 “하나님께서로부터의 전향이 인간의 원죄”⁸⁴⁾라고 설명한다.

타락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다.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에 오염되어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며”⁸⁵⁾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마음, 정신 그리고 모든 행동이 죄로 향하도록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칼빈은 ‘전적타락’을 사용한다. 또한 칼빈은 원죄가 아담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후손 전체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도 아담과 같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유전적 부패“를 주장한다.⁸⁶⁾

(3) 새로운 인간의 삶

죄로 인하여 창조의 중심적 위치를 상실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타락으로 인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절망적 상태의 인간에게는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복음의 내용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새로운 인간의 삶’이다.⁸⁷⁾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셨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이것은 비참한 상태에 있던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룬 것이었다.⁸⁸⁾ 하나

84) W. Niesel, 「칼빈과 신학」 이종성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p. 76.

85) Inst., II. i. 9.

86) Inst., II. i. 5.

87) Inst., II. iii. 13.

88) Inst., II. xvii. 2.

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실 분이며, 그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이 연합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며, 믿음에 의해서 그 신비로운 연합은 더욱 굳건해진다.

새로운 삶을 위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시작으로 칼빈은 성화와 자기부정의 삶을 강조한다. 성화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 모두를 매일 매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과정은 중생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생동안 일어나는 '점진적 과정'이라고 칼빈은 이해한다. 또한 칼빈은 자기부정의 출발점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한다.⁸⁹⁾ 칼빈에게 있어서 자기부정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포기이며 자신의 모든 소원과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부정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며(딤후 2:11-14), 이웃을 돕는 태도를 바르게 한다고 주장한다.⁹⁰⁾

2) 성서관

칼빈의 신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모든 방면으로 일관하여 관철하려는 은총의 사상이었다.⁹¹⁾ 칼빈은 그의 신학

89) Inst., III. iii. 9.

90) Inst., III. xvii. 4.

91) 전경연, op. cit., p. 95.

적 사고의 출발점을 성서 그 자체에 설정하고 그의 신학이론을 전개시켰는데,⁹²⁾ 이장식(李章植)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칼빈의 신학을 성서주의(聖書主義)라고 부르는 것은 교리(敎理)와 신학이론(神學理論)이 철학적 사색(哲學的 思索)이 아니고 오직 성서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말함으로써 중세 스콜라주의 철학과는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또 그의 성서주의는 성서에 있는 교리적 교훈을, 이를테면 예정과 섭리와 같은 어려운 교리를 되도록 쉽게 설명하며 변증하려는 태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 잘 나타나 있다.⁹³⁾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칼빈은 먼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뿐 아니라 그의 위격, 모든 사업,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 그리고 재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⁹⁴⁾

두 번째, 칼빈은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서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주장한다.⁹⁵⁾ 즉 하나님은 진리

92) 홍치모, 'Calvin과 Knox' 「신학지남」 제58권, 2집, 228호(1991, 여름):125f.

93) 이장식,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개혁교회의 신학과 신조의 특징」(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8), p. 8.

94) 황승룡, "종교개혁자들과 신교정통주의자들의 말씀론 비교", 「기독교 사상」 327(1985. 9), p. 160.

에 관한 신탁을 성서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탁의 총체라는 것이다. 칼빈의 관점에 따르면 성서는 인간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자신에 대한 특별계시를 문서의 형태로 만든 것이다.⁹⁶⁾ 성서라 할 때, 칼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말씀’, ‘율법, 예언, 그리고 복음’, ‘너에게 선포된 말씀’, ‘하늘 교리에 관한 증거문서’ 또는 ‘경건의 원리’ 등등을 그 동의어로 사용한다.⁹⁷⁾ 칼빈은 성서를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를 보존키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⁹⁸⁾ 이처럼 칼빈은 루터의 경우처럼 복음 중심적 성서 이해를 하면서도 기록된 말씀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바우케는 “루터주의자나 개혁파나 독일인이나 서구인 사이에 칼빈이 사실로 성서주의자였다는 것에 異議를 가지는 자는 없다. 즉 성서가 그에게 있어서 루터에게서 보다 실로 독특한 의미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졌다는 것이다. 즉 성서는 그가 자신의 신학 내용을 펴내는 그릇이었다.”⁹⁹⁾고 말한다.

칼빈은 로마 카톨릭의 그릇된 성서관에 대하여 성서의 권위는 교회나 이성의 논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서를 판

95) “칼빈은 성경속의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사역에 의하여(Inst. I.vii.5)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Inst. I.vii.1)으로 이해하였다.”

96) Inst. I. v. 1.

97) 한신대학출판부 발행,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8), p. 43.

98) 이종성, 「칼빈」(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2), p. 71.

99) 전경연, op. cit., p. 93.

단할 권한이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한다.¹⁰⁰⁾ 칼빈은 교회가 성서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거부했다. 칼빈은 교회란 선지자와 사도들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했다.¹⁰¹⁾ "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처럼 성서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써 생각할 때에만 신자들 가운데서 온전한 권위를 얻는다."(Inst. I.vii.1)고 하면서 칼빈은 성서의 권위가 성서 그 자체에 있다고 하였다. 즉 성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다.

성서권위의 두번째 국면은 칼빈에게 있어 성서의 권위가 성서 자체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서에서 가르치는 신적인 교훈에 의존한다. 즉 그것은 역사속에서 계시하셨고 지금 성서란 형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서의 중심 메시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성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목적이며 목표이다. 그래서 그는 만일 성서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죽은 문자 문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까지 말한다.

3) 교회관

100) "교회가 성경을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거나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은 거짓된 책략이다" (사물엘 던 편, 「요한 칼빈의 진수」 김득용 옮김(서울: 성광문화사, 1985), 15.)

101)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반이 된다면 성경은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Inst.,I.vii.2)

칼빈의 교회관은 그가 스트라스부르크(Strasburg)에 머물고 있는 동안 (1538.8-1541.9)에 성숙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성숙해진 자신의 교회관을 기독교 강요 제2판(1539년) 제4권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¹⁰²⁾ 칼빈은 이 책의 첫머리에서 “하나님은 신앙심을 일으키고 기르기 위한 도움을 예비하셨으며 이것을 교회안에 기탁하셨다. 때문에 이 은혜를 얻기위해 교회의 품안에 모여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⁰³⁾ 이 책은 로마교회의 악습과 모순에 대항하고 개혁과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로마교회내에도 교회가 있음을 인정했고 이런면에서 루터와 의견을 같이했다.

(1) 교회의 본질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말함에 있어서 그 첫번째로 피택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제4권 2장에서, 그리고 칼빈선집 제5권 4페이지 2행에서 “교회는 성도들의 단체이며 곧 피택자 전체를 뜻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교회의 본질의 기초를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선택으로 본 것이다. 또한 그의 요리문답서(要理問答書)의 사도신조(使徒信條) 제4조에서 “먼저 우리는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인 하나의 거룩한 보편 교회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 선택교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봉사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평안과 확신과 자극을 주는 것이라고 말함으로¹⁰⁴⁾ 교회가

102) 신윤복, “칼빈의 교회관”, 「신학지남」 제46권 1집 183호(1979, 봄호):39.

103) G. W. 브로밀리, 「역사신학개론」 김해연 역(서울: 은성, 1987), pp. 220-226.

104) W.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6), p. 191.

지상에 존재하는 한 이 선택교리는 계속 지지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두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칼빈은 그의 모든 주석을 통하여 모든 신자들의 결합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통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신앙공동체가 형성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만 교회의 통일이 있기 때문이다.(엨 1:22)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뿌리의 역할을 함으로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골 1:18)¹⁰⁵⁾

세번째는 성도들의 교통으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의 은혜는 무엇이든 서로 나눈다는 원칙하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집되었다는 뜻이다.¹⁰⁶⁾ 성도들의 교제는 그리스도가 머리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형제애로서 연합되어 지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독재나 횡포가 불용된다는 것이다. 교제와 질서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에서 파생된다는 것이다.¹⁰⁷⁾ 성도들은 교통을 통해 상호간에 애정과 동정과 관심과 편의를 가지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

(2) 교회의 사명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참 교회로서의 확실한 판단을 위하여 두가지 간결한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곧 말씀의 신실한 설교와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주의깊은 훈련의 실시”이다.¹⁰⁸⁾

105) John Calvin, Commentary on Corinthians, p. 336; Galatians and Ephesian, p. 218; Philippians, Coloissians and Thessalonians, p. 152.

106) Inst. V. i. 3.

107) 김의환, “칼빈주의 교회관” 「신학지남」, 제42권 (1975..9):8.

108) A. M. Hunter. The Teaching of Calvin,(Glasgow: Tackson and Co.,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교회의 목사들로 하여금 그의 진리를 설교하게 하시며 또한 거기서 우리를 가르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말씀의 전도와 성례전의 집행을 소유하고 중히 여긴다면 그들은 전혀 의심없이 교회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례전은 확실히 어떤 좋은 결과를 주기 때문이다.¹⁰⁹⁾

칼빈은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존귀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의 징계(dicipline)에 대한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인의 훈련과 연합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편지에 나타나고 있다.

..... 여러가지 점으로보아 우리 가운데서 크게 요구되는 저 옛날 사도시대의 훈련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면 위는 영속적인 교회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불링거[Henry Bullinger]에게, 1538년 2월 21일, 제네바에서)

이것을 기초로하여 칼빈의 교회의 사명을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말씀을 설교하는 일이고, 둘째는 교회원들에게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치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교육의 사명이다.¹¹⁰⁾ 셋째는 신학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인 성례전을 베푸는 일이며, 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이다. 칼빈은 교회의 선

1920), p. 156.

109) Inst., IV, i. 8-9.

110)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p. 239.

교적 기능은 모든 성도의 “생업에의 소명(vocation)”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삶의 행위에서 부름을 의식하도록 요구하신다. 칼빈은 또한 교회는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¹¹¹⁾

C. 신학사상이 교육사상에 끼친 영향

1. 교육의 목적

루터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전인적’(全人的)으로 이해한다. 즉 그에 의하면 자연인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전인적으로 육적이 될 수도 있고, 전인적으로 영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그릇된 선택으로 전인적으로 육적인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루터는 자연인 자체를 죄인으로 규정하는데, 이 명제는 루터의 인간론의 출발점이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된다고 루터는 말한다. 즉 인간은 죄인된 몸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며,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 ‘의인’에 대해 세가지 특징을 주장한다. 첫째, 인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하나

111)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op. cit., pp. 173-74.

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시는 선언, 즉 '전가된 의인'을 말하며, 두번째는 믿음에 의한 의인을, 그리고 셋째로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simul justus et peccator)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의인된 사람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며, 의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움직임 혹은 여행의 출발 단계에 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에서 의에로의 순례의 길이며, 이점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다 된 존재(Geworden - Sein)가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존재(Werden - Sein)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루터의 교육 목적이 나타난다. 그것은 되어가고 있는 존재로서 타락한 인간이 새롭게 회복하는 과정을 말하며, 상실된 자아에서 '신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개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도덕적 측면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전인적 인간(Totus Homo)을 만드는 것으로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루터는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신분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직무가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루터는 개인주의적인 것과 현 생활을 무시한 체 저 세상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혹평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웃과의 사귄에 동참해야 하며 현실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루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향한 봉사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본다. 즉 인간은 하나님 정하여 주신 직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뜻과 만나며, 각자의 소명과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관계한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가 요청되는데, 이는 타인을 위해 사셨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의무라고 루터는 주장한다.

칼빈의 인간이해는 죄로 인하여 창조의 중심적 위치를 상실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타락으로 인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절망적 상태의 인간에게는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 복음의 내용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새로운 인간의 삶'이다.

새로운 삶을 위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시작으로 칼빈은 성화와 자기부정의 삶을 강조한다. 성화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 모두를 매일 매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성화는 일생동안 일어나는 '점진적 과정'이라고 칼빈은 이해하는데, 여기서 칼빈의 교육의 목적이 나타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과 성화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칼빈은 말한다. 또한 칼빈은 자기부정을 통한 경건생활의 강조는 사람들을 도덕과 질서가 바른 엄격한 시민으로 성장시켰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하였다.

2. 교육 내용

인간이해를 통하여 루터와 칼빈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래 상태로의 인간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하나님 형상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 형상회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

한 교육 내용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루터와 칼빈은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한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 곧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고 보아 예수 그리스도속에서의 ‘말씀’을 강조한다. 계속해서 루터는 그리스도가 인간성 가운데 숨겨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 같이 성경은 쓰여지고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과 그의 활동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으며,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루터는 주장한다. 칼빈은 특히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서를 강조하면서, 성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며, 그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성서는 루터와 칼빈이 생각하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었고, 교육의 방편이었다. 루터는 교육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밑에 두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하여 창조된 것 같이, 교육의 성취여부도 같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배우는 학습과정을 의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성서는 다른 모든 교재의 으뜸이 된다”고 강조한다.¹¹²⁾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조하는 칼빈은 성

112) 지원용, 「루터사상의 진수」, p. 180.

서의 내용을 중시하였다. 성서에 대한 칼빈의 입장에 대해 이수영은 ‘성서는 그의 사상의 영혼이며, 그의 신학의 본체이다.’¹¹³⁾라고 말함으로서 칼빈에 있어서 성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루터와 칼빈이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성서의 중요성을 똑같이 강조하기는 했으나, 올바른 성서의 이해를 위해 어학을 비롯하여 폭넓은 학문을 장려했다.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세계의 가능성을 열도록 명령하시고 축복하셨다고 보았던 것이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만일 신앙심이 없는 자의 수고와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물리학, 윤리학, 수학, 예술, 과학을 이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무시하여 쓰지 않으므로 배은 망덕의 죄책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¹¹⁴⁾

루터 또한 언어와 일반 고전 문화에 대하여 “어떤 칼은 다른 칼보다 더 잘 벨 수 있다. 이와같이 언어에 능통하고 교양과목(liberal arts)에 어느정도 조예가 깊은 사람은 더 잘 그리고 더 분명히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¹¹⁵⁾고 강조하였다.

113) 이수영, “칼빈주의 신학의 몇가지 기본관점”, 「장신논단」 (1985. 9):126.

114) Inst., II. ii. 16.

115) 지원용, 「루터의 사상」 p. 228.

3. 교육방법

인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의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길은 복음을 믿는 신앙안에서이다. 그러나 인간은 무지하고 나태한 속성이 있는 고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생겨난 후 그 신앙이 점점 돈독해지는 데에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복음의 선포가 계속되도록 목사와 교사를 세워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셨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교육의 장으로서 핵심적임을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의 품안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모다 교회의 성무(A Holy Duty)로서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시며 또한 그들이 성숙한 신자가 되어 신앙의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모성애와 같은 배려로 그들을 기꺼이 인도하신다.¹¹⁶⁾

루터 또한 교회의 만인제사장직에 대해 제사직의 주임무로서 가르치고, 예배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언급한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목사와 교사는 교회안에서 그들의 가르치는 임무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뿐 아니라 장

116) Inst., IV. i. 2.

래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그들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할 것을 강조한다.

증생한 인간이 성화과정을 통해 개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교육의 장이 전체적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루터는 가정을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며, 교육에서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학교교육의 가치를 루터와 칼빈은 제시한다.

루터에 대해서 지원용 박사는 “루터에게 있어서 종교와 교육의 가치는 동일한 위치에 있다. 가르치는 직무에 대한 그의 평가는 설교하는 직무에 대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들 사이의 차이는 그 본질과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식에 있을 따름이다. 죄인을 회개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게하며 계속 그를 은총의 상태에 보존하는 말씀의 가르침이 교육이 맡은 일이다.”라고 말한다. 117) 때문에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루터는 대소교리 문답서들을 썼고 그의 여러 논문들을 썼던 것이다.

이제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제로서의 사명을 받은 크리스천은 각자의 신분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직무가 있다. 루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향한 봉사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본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117) 지원용, 「루터의 사상」 pp. 189-190.

직분(직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뜻과 만나며, 각자의 소명과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관계한다. 그리고 이웃에게 대한 사랑과 봉사가 요청된다. 즉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이웃에 관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루터와 칼빈은 교회안의 교육뿐 아니라 실제 삶속에서의 교육을 함께 강조하므로서, 기독교 교육의 장으로서 전체적 삶의 현장을 언급한다. 이러므로 보다 넓은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III. 루터와 칼빈의 기독교 교육사상

A. 루터의 기독교 교육사상

1. 교육 목적

루터시대의 독일 교육제도는 교회의 주장과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으며¹¹⁸⁾, 국가 주도의 국민 교육을 위한 어떠한 교육 정책의 현실이 없었던 시기였다. 교회 학교는 주로 사제직의 지원자들을 위해, 교구 학교는 청년들의 교회원이 되기 위해, 공민 학교는 제도시의 상인과 장인계급의 양성을 위해, 기사교육은 기사단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교회의 부패로 인한 사제들의 무지는 일반인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성경교육을 등한시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¹¹⁹⁾

당시 교육양식과 교육과정은 본질적으로 중세기부터 내려온 것과 동일한 형식의 것으로 초등교육도 3R's¹²⁰⁾ 교육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것도 몇몇 학교에 있어서만 제대로 진행되는데 불과했고 대부분의 가르침은 고대 교과서에 근거하고 있었다. 학문에 대한 자유로운 탐구는 거의 볼 수 없었고, 교황의 교서에 의하여 교육제

118) G. H. Bruce, Luther as an Educator(Minneapolis: Augsburg Pub., 1928), p. 52.

119) Ellwood P. Cubberley, The History of Education,(New York: Houghton Mifflin Co., 1984), pp. 263-86.

120) reading, writing, arithmetic을 말한다.

도와 방법이 결정되었고, 학교는 교회와 함께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서민계급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없었는데, 이에 대해 Painter는 ‘..교육으로 서민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무도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의존적이고 노예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일반생활에 있어서 전혀 지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였다.’¹²¹⁾고 하여 서민교육의 무비상태를 지적하였다.

중세의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원 학교(Monastic Schools)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순결, 빈곤, 복종의 3대 이념을 실현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이다.¹²²⁾ 수도원들은 읽는 것, 쓰는 것을 가르쳤고, 고대교회 사본의 보존과 복사를 제공하는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수도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금욕주의는 지식과 학문의 발전을 저해시켰으며, 루터도 수도원의 교육에 대해 좋게 평가하지는 않았다. 둘째는 기사교육(Knightly Education)으로서, 기사를 교육시키는 특별한 학교와 같은 것은 없었지만 교육내용은 일정한 지표하에 어느 정도 구체화 되었고 세속적 교육 전반을 대표함과 동시에 학교에 의하지 않은 교육, 상류사회의 교육이었다는 점에 그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¹²³⁾ 세번째, 대학(Universities)은 지적 부흥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121) F.V.N. Painter, Luter on Education,(St. Louis: Concotdia Reprint, 1965), pp. 86-87.

122) 안상원, 「교육사 및 교육철학」(서울: 재동문화사, 1988), pp. 178-79.

123) Ibid., pp. 182-83.

지식에 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낡은 지식을 체계화하고 전하는 것에 그쳤고, 교수 방법도 토론과 해설이 주가 되었다.¹²⁴⁾ 네제는 시민학교(Burgher School)로서 도시학교라고도 한다. 상공업의 발달과 도시발달에 의한 요구로 생겼기 때문에 교육내용도 어디까지나 시민계급에 필요한 생산교육, 직업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었다.¹²⁵⁾ 끝으로 성서연구와 교육에 헌신한 중세 평신도 모임으로서 실제적 경건생활의 발전을 위해 고전학을 적용하는 일을 강조¹²⁶⁾하였던 공동생활 형제단(Brethren of the Common Life)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 교육을 강조한다. 루터는 모든 교육을 종교적인 목표에 지향시키면서 교육의 목적을 구체화 시켰다.¹²⁷⁾ 루터의 교육관은 그 목적으로나 형태, 내용이 한결같이 “종교적”[기독교적]이며, 크리스찬 교육이다¹²⁸⁾ 이는 루터의 교육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중심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중세 수도원 학교나 교회학교에서 실시되던 지적, 혹은 도덕적인 측면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전인적 인간(Totus Homo)을 만드는 획기적인 교육을 주장했다.¹²⁹⁾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새롭게 회복하는 과정을 말하며 상실된 자아에서 ‘신의 형상(Image Dei)’를 회복하여 자기에게 주어

124) 김재만, 「교육사조사」(서울: 교육과학사, 1983), p.125.

125) 안상원, op.cit., pp.188-89.

126) 배한국, op.cit., p.26.

127) Foster Waston, 'Martin Luther': A Cyclopedia of Euducation, ed., Paul Monroe(New York: The Macmillan CO., 1925), pp. 94-95.

128) 지원용, "루터의 교육관" 「기독교 교육」 제 7호 (1965. 3):24.

129) 정정숙, op. cit., p. 48.

진 모든 가능성을 개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이웃과 국가에 대한 의무달성이 교육의 목적이며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봉사하는 생활을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¹³⁰⁾ 인간은 보이지 아니하는 신을 직접 섬길 수는 없고 다만 그가 속하는 사회에서 그 동료 인간들을 통해서만이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루터는 또한 교육을 사회와 국가를 위한 부와 힘과 번영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한 나라의 진정한 부와 힘은 학식과 지혜와 정직성을 겸하여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많은 근면한 시민을 가지는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각 영역에 적용시켜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모든 타입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의의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교육의 기본 목적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이것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¹³¹⁾

루터는 학교와 교회를 국가의 관리아래 두도록 하였는데,¹³²⁾ 이것은 국가로 하여금 당시 독일 교육을 통제하도록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기독교 학교를 후원하고 유지할 것을 전 독일 시민들

130) 지원용, 「루터의 사상」(서울: 컨콜디아사, 1960), p. 243.

131) Harold J. Grimm, 'Martin Luther'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ed., Elmer L. Towns(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5), pp. 103-105.

132) 루터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해야 할 것을 논하는 헌장'에 잘 나타나 있다.

과 시의원들에게 호소하는 논문”의 제 4장 ‘신민정부와 교육’의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통치자들에게 바치는 탄원’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통치자들의 직무수행 없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될 수 없으며 성령도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둘째,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불가결한 존재이다. 셋째,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이 세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루터의 호소는 교육을 속화(Secularization)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서에서 구체화된 생활원리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동하고 실천되기를 원해서였다.¹³³⁾

루터의 교육은 이와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신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을 경외하도록 하여 지식의 증진과 인격도야를 성취하려 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종교와 교육의 결합은 종교개혁운동에서 외쳐진 강조점이었으며, 루터의 견지에서 보아 교육은 그 자체안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교회와 국가를 위한 더 효과적인 봉사를 위한 방편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신학자 Harrison은 루터의 교육목적은 첫째, 성서의 개인적 해석에 의한 종교적 도덕주의 둘째, 내세와 현세를 위한 준비 세째, 국가와 교회에 정직하고 성실한 봉사 네째, 가정과 국가, 사회에 대한 의무로 보았다.¹³⁴⁾ 이것은 현재에서 가질 수 있는 값있는

133) Elmer Harrison Wilds, The Foundations of Mordern Education, New and enlarged edtion(New York: Rinehart and Commpany, Inc., 1942), pp.283. 293.

생활과 영광스런 내세의 준비로 교육을 생각했던 루터의 교육관을 나타낸 것이다.

2. 교육 내용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녀요 백성인 인간을 통하지 않고는 선포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없이 참된의미로 존재하기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성서는 루터가 생각하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었고, 교육의 방편이었다.¹³⁵⁾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은 신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인 성서라고 루터는 주장한다.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 루터는 학교 교육에서의 성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특히, 지도자는 학교안에서 친절하게 성경과목을 많이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젊은 소년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여학생들에게는 각각 하나님을 알게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녀들에게 매 시간 복음을 독일어나 라틴어로 가르쳐야 한다.¹³⁶⁾

여기서 주목할 것은 루터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말씀'을 발견하

134) 김봉수, 「교육철학사」(서울: 학문사, 1968), p.247.

135) 지원용, 「루터의 사상」 p. 134.

136) Ibid., p. 135.

고 있다는 점이다. 즉 루터는 그리스도의 삶 자체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며, 때문에 성서와 인간과의 관계를 성서 앞에 선 인간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규정한다.¹³⁷⁾ 따라서 루터는 실생활속에서 성서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추구하며 교육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성서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마침내 성서를 아동교육을 위한 불가결의 교재로 만들었다. 루터는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방대한 성서의 내용을 간추려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소교리 문답서를 어른들을 위해서는 대교리 문답서를 만들었다.¹³⁸⁾ 이것은 교육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도 특히 유의하였다.

둘째로 루터는 음악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여 음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음악이야말로 인간의 우울하고 쓸쓸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귀중한 예술이라 보았는데, 실제로 자신의 종교개혁 중 위기와 좌절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 작사 작곡을 통해 극복하기도 했다.(개신교 찬송가 384) 루터는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의 감정을 정화시키며 그 가사내용을 통해 교육할 수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루터는 노래를 독일어로 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시간에 자국어로 부를 수 있게 하였다.¹³⁹⁾ 또한 루터는 단

137) 정웅섭,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p. 83.

138) Roland H. Bainton, op. cit., pp. 230-234.

139) Ibid., pp. 266-271.

계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음악연극 같은 것을 하는 일은 아이들의 단체 훈련을 위하여 큰 의의를 지닌 교육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였다. 독일국민이 음악을 즐기게 된 것과 종교음악이 발달하게 된 데에는 루터의 공헌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세째, 루터는 역사교육을 당시 자행되던 교권제도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무기라고 봄으로서 역사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것은 재래의 로마교회가 택하고 취급해온 역사적인 사건들의 검토에 수정과 비판을 가한 것으로, 역사의 단순한 지식보다 역사의 의의를 강조한 데 있는 것이다. 즉 역사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역사가운데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의 교시라는 것이다. 또한 루터는 도서관에서 년대기와 역사서들을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하며 유능한 역사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¹⁴⁰⁾

네째는 언어연구이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하여 인류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오묘한 진리를 알아 듣도록 만드셨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언어들은 복음을 계속 보존해 주는 것으로서, 선한 것이 보존되어 있는 상자와 그릇이며 방이라 하였다. 루터가 언어들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라틴어, 희랍어, 히브리어, 독일어를 뜻한다. 이것은 성서의 원전 사용된 언어들이고 루터가 번역한 언어들이다. 루터는 특히 성서와 관계된 고전어 및 언어를 배우고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40) 김형석, 「루터의 생애와 사상」 (서울: 삼성미술재단, 1979) p. 22.

...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정확히, 그리고 쉽게 가르치고 배우기
위하여, 즉복음 선포를 위하여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¹⁴¹⁾

즉 신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언어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루터는 언어교육에 있어서 문법을
강조했고 일상생활을 통한 회화식을 역설하였다. 즉 언어를 가르치
는 방법에 있어서 실제적인 연습과 사용을 원했다.¹⁴²⁾

다섯째는 자연과학의 강조이다. 루터는 자연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훌륭한 선물로 관찰한 대표적인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
다. 루터에 의하면 아름다운 대자연의 삼라만상 가운데는 우리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거나 제고해 볼 가치조차 없다거나 너무 작아서
칭찬할 것이 못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았으며, 그것은
자연의 연구가 하나님의 선한 경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
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섯째, 루터는 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교양과목의 전반적인 가치를 인정하였다. 교의과목이라 불리는 인
문주의적 학과의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기독교 교역자와 교사 및 그
밖의 일반 지도자들의 훈련을 위해 바람직 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겼다. 루터가 제시하는 교과과목은 문법 수사학 및 윤리학과 음
악, 수학, 기하학 및 천문학을 말한다. 이런 점에 대해 파울슨¹⁴³⁾은

141) 지원용, 「루터의 사상」 p. 229.

142) Ibid., p. 228.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일의 철학, 과학, 문학 및 문화는 프로테스탄트즘등의 기초위에서 성장한 것인데 이것은 종교개혁 운동이 성장케한 사상의 자유와 독립정신에서 생긴 결과이다. ...

이상과 같이 루터는 넓은 범위에 걸쳐 교육과정의 강조와 음악을 통하여 언어연구를 통하여 보다 더 분명히, 정확히 언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과학과 교양과목이라 불리우는 여러 학과의 넓은 범위의 필요성을 말하고 이런 과목들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3. 교육 방법

루터는 교육의 대리기관으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말하면서 교육의 성패는 이들의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보고 각각의 독특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가정과 국가와 교회는 교육에서 서로 노력하여 있으며 그 조력기관은 학교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며, 국가는 학교를 세우고 보존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또한 게으른 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의 학교출석을 권해야 하며, 교회는 국가의 협조 밑에서 가르치는 일과 감독하는 일, 관찰하는 일에

143) 배 한국, op.cit., p.122.

진력해야 한다.¹⁴⁴⁾

첫째, 루터가 주장한 표준교육은 먼저 가정이다. 루터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교회와 국가의 복지를 이룩하고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정은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가정교육과 건전한 가정생활은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고 사회복지를 이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로 어린이들은 부모를 모시고 존경과 순종과 자제를 배워야 한다. 가정에서 끼치는 감화는 선, 악에 대해 결정적인 힘이 되고 교육에서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한다고 루터는 주장한다.¹⁴⁵⁾

가정안에서 자녀교육의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일이다. 따라서 루터는 가정을 무시하는 것은 전 세계를 혼란과 혼동 가운데로 이끄는 참사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교육 방법 면에서 사랑이 아동교육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유년기의 맨 초기부터 훈육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둘째, 루터교육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종교이고 성서가 학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교회교육을 중요시 하였다. 교회는 아동의 교육적 발전에 대한 모든 면을 감시할 결정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와 더불어 신의 영광과 인류의 발전을 위한 존엄한 교육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⁴⁶⁾

144)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pp. 194-195.

145) 김이열 역, 「새자녀 지도법」 (서울: 시조사, 1963), pp. 13-14.

146) E. M. Plass, What Luther Says, Vol. 3(St. Louis: Concordia

교회교육의 목적은 학습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식을 주입하는 데 있지 않고 전 생애를 통해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려는데 있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생활과 신앙에 들어가게 하려면 교회교육이 가르쳐야 할 것으로 성경, 예배의 생활, 교회사 연구, 신도 사이의 교제, 현대 세계에 대한 아동의 이해등을 제시하였다.¹⁴⁷⁾

세째, 루터는 일반 가정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학교의 가치를 제시하였다.

..... 학교는 교육의 전당이다. 여기에서 가정과 국가와 교회가 같은 동기밑에서 만나 한 공동신조를 고백한다. 학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빛이며 힘이다. 이것이 세계 모든 곳에 골고루 미치게 되어야 한다.....¹⁴⁸⁾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학교의 설립이야말로 종교가와 통치자들에게 지워진 매우 중대한 사명이었다. 루터는 “전 독일시민과 시의원들에게 호소한 논문”에서 한 시의 최선 및 최대의 복지, 안전, 힘등은 그 시가 많은 유능하고 학식있고 현명하고 존경할 만하며 잘 교육받은 시민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도시에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어디에나 그들이

Publishing House, 1959), p. 292

147) 장운철 역, 「교회의 교육적 사명」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80), pp. 157-176.

148)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pp. 219-220.

결핍되어 있으며 아무데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불평이 높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성장되기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배출하고 훈련시키는데 노력과 비용을 아껴서는 안될 것입니다.....149)

한편 주로 읽기, 쓰기, 그리고 종교적인 공부에 치우쳤던 중세 말엽의 학교들의 교육과정에 불만을 품고, 그는 모국어 및 다른 언어들, 문법, 수사학, 논리학, 문학, 시 역사, 음악, 수학, 체육,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공부까지 가르칠 것을 촉구하였다. 루터는 학교 교육제도를 폭넓게 파악하고 독자적인 교육제도를 모국어 초등학교, 라틴 중등학교, 대학으로 구상하여 제시하였다.150)

루터의 교육방법 및 원리는 매우 진보적이었고 시대에 앞서가는 것이었다. 교육방법에 대한 루터의 견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입식 교육방법으로 암기와 암송을 강조하는 엄격한 훈육방법을 제시하였다. 루터는 본문의 어구와 그 가운데 쓰여진 표현방법 같은 것을 시종일하게 사용하며 한마디라도 변경해서는 안되며, 매장을 각별히 순서에 따라 가르치고 반복시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었다.151)

둘째, 흥미중심의 학습을 위해서는 교실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루터는 인간의 자유를 중요시하여 엄격한 훈련과 체벌을 배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즐거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체벌을 삼가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49) 「루터선집」 제 9권, p. 298.

150) 차승주, 「서양교육사」 (서울: 재동문화사, 1975), p. 116.

151) 지원용, 「루터의 사상」 p. 236.

....채찍과 채별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나중에 어린
이에게 채찍 자국만 남겼지 아무것도 없다.배우는 것이 어린이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라...152)

세제, 아동의 능력을 고려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아동중심의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천성에 따라 교육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교사들은 아동의 능력
별로 적절히 가르쳐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린이는 뛰고, 뒹굴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바라는 천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학교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왜 그와 같은 공부를 제공
하지 않는가?...153)

네제, 학습에서 본보기와 모범이 언어나 권고보다 더 낫다고 하였다. 루터
는 아이들은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자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부
모가 아이들에게 절대로 나쁜 행동을 보이지 말것과 노동에 대해 존경심을 보
이도록 하였다.154)

다섯째,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루터는 교육은 가능한 한 일찍
부터 시작하여야 하는데,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나무가 작을 때에 그것을 가꾸기 쉬운 것같이 어린아이들은

152) Works. 54 : 235.

153) F. V. N. Painter, op. cit., p. 164.

154) Ibid., p. 126.

성장한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¹⁵⁵⁾

여섯째, 학습과 실습은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루터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남자 아동들은 학교에서 하루에 한 두시간씩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일하며 어떤 특수한 직업을 배우도록 하되 그의 취미에 맞는 것을 택하게 해야 하며 여자 아동들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⁵⁶⁾

B. 칼빈의 기독교 교육사상

1. 교육 목적

칼빈의 교육목적은 하나님 앞에 사는(Coram Deo)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Gloria Deo)을 나타내는데 있다. 칼빈의 이념은 ‘하나님께만 영광을(Soli Deo Gloria)’이었다. 하나님께 죄를 입은 죄인들이 사죄함을 얻을 수 없을 때, 그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칼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¹⁵⁷⁾

비록 1세기 뒤에 제정되기는 했으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Westminster Shorter Catechism)의 처음 항목들은 이러한 칼빈의

155) 지원용, 「루터의 사상」 pp. 224-225.

156) Ibid., p. 237.

157) 전경연, op. cit., p. 64.

주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문1 : 인간의 제 1 우선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문2 : 우리가 그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며, 또한 즐거워해야 할
지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어떤 규칙을 주었습니까?

답 : 신구약 성경에 포함된 신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인도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¹⁵⁸⁾

두 번째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인식케 하는
것이다. 당시 무질서와 혼란에 차 있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기 위
해서 칼빈은 신의 창조질서를 생활속에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이유로 칼빈의 표어는 “질서와 훈육”이었다.

바울은 우리의 선택의 목적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생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만약 선택의 목적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있
다면 오히려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자극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태만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된다.¹⁵⁹⁾

158) L. W. Spitz,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p. 209.

159) Inst., III. 23 . 12.

그는 사람들을 도덕과 질서가 바른 엄격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윤리적 이상과 목표를 제시하여 주었고, 이를 위해 자기부정을 통한 경건생활을 강조하였다. 칼빈의 경건훈련의 강조는 바른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하며, 생활의 신학으로서의 의미를 더욱 증진시켰다.¹⁶⁰⁾

2. 교육 내용

칼빈은 1538년에 작성한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문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배움의 토대가 된다고 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기독교 교육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칼빈은 성서내용 자체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조한다.¹⁶¹⁾ 이것은 Guillaume Farel에게서 유래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모든 성서 해석은 성서의 다른구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서도 성서만이 절대유일한 규범이며 교회교육이란 결국 성서 자체에 의한 성서의 엄밀한 해석이라고 이해한다.

성서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고로 그 권위를 스스로 지니고 있다. 성서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기독교 교리나 도덕 생활이나 인간 교육의 모든 면에서 절대적이요 최종적인 권위를 가

160) 한철하, 「고대기독교 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p. 79.

161) 이정효, 「현대성서교육론」 p. 204.

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이 성서에 있으며 이것이 모든 지식과 교육의 토대가 됨을 알 수 있다.¹⁶²⁾

둘째, 칼빈은 제네바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일반 인문교육도 종교 교육과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인문학과와 교육을 잘 받으면 신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문과학을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¹⁶³⁾ 칼빈은 고전이 인간의 정신생활과 일반지식의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그것에 동화되거나 숭상하지는 않았다. 그는 신의 주권과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수용하고 비판했던 것이다.

셋째, 칼빈은 신학을 중요시 하였으며 이 교과목을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어학과 과학의 지식을 받도록 하였다.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하여 중시하였으며, 교양있는 목사와 유능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법률, 역사, 철학, 변증학을 중요시하여 가르쳤고, 법률은 제네바시에서 손수 작성하여 공포 시행하기도 하였다.¹⁶⁴⁾

넷째, 칼빈은 특별히 여러 가지 저서를 통하여 종교교육에 기여했다. 기독교의 신앙체계인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여 독자에게 신앙의 이성적인 이해를 주었고 청소년과 아동의 신앙을 양육하기 위하여 '신앙 고백서'를 기술했다. 칼빈의 대표작인 '기독교 강요(

162) 김남식 편, 「칼빈주의 연구」 (서울: 백합출판사, 1977), p. 26.

163) Ibid., p. 28.

164) 전경연, op. cit., p. 54.

The Institutes of Chritian Religion)'는 그의 사상의 집대성이며 인류역사에 깊은 영향을 준 책이다. 이 책 서문에 신의 무한한 교리의 본질을 위하여 그가 심혈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원래는 종교개혁 이전 성서적 오류가 종교개혁 이후 신교도들을 박해 하였고 기 때문에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1541년에는 프랑스어판을, 1561년에는 영어판을 출판하였고 제2판, 3판, 4판등에서 내용을 보충하여 고백적인 면에서 입문서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 변증적 고백의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개혁사상중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체계화 되어 있다.이것은 그를 개혁가로서의 학자적 위치를 확고히 하게 했고 종교개혁의 방향과 입장을 분명하게 하였다. 즉, 성경을 토대로 하여 생활철학으로서의 철저한 교육을 주장하는 칼빈의 교육관이 이 기독교 강요에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스스로 이렇게 강변한다. “오늘날 모든 종류의 주제들이 열심히 추구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신에 대한 지식은 등한시된다. 그렇지만 신을 아는 것은 인간의 주된 목적이며 또한, 그것에 의해 인간의 존재가 정당화 된다. 만일 우리의 삶이 백번이라 하더라도 이 한가지 목적만으로 그 모든 삶을 위하여 충분한 것이 될 것이다.”¹⁶⁵⁾

165) “Today all sorts of subjects are eagerly pursued : but the knowledge of God is neglected.....get to know God is man’s chief end, justifies his existence, even if a hundred lives were ours, this one aim would be sufficient for them all” J. Calvin, Commentary of the Jeremiha(Grand Rapids : Michigan, Eerdmans

3. 교육 방법

칼빈의 교육방법은 역시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발견할 수 있다. 루터의 세속적 방법에 비하여 칼빈은 상당히 영적 신앙과 원칙적 원론을 말한다. 하나는 신적 방법으로서는 인간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 계시에 따라 인간을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인간적 방법으로서는 자기부정, 기도, 묵상, 선행들의 일로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통한 바른생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⁶⁶⁾

먼저, 칼빈은 신을 교육적 의미에서 교사로 이해 하였다. 신은 교사(Educator)이시며 선생(Teacher)이시라는 것이다.¹⁶⁷⁾ 그는 말하기를 “창조의 역사는 수 많은 밝은 등불을 켜사 창조주의 영광을 비추고 있다”¹⁶⁸⁾ 고 하였다. 신의 창조 자체가 바로 교육내용이며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다. 칼빈은 성경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학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극히 초보적인 지식도 갖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참된 종교의 깊은 신앙을 체험하기 위하여는 하늘로부터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¹⁶⁹⁾ 이때 성령의 역사가 없이

Publishing Co., 1971), Jer. 9:24.

166) Inst., I. iii. 20.

167) T.H.L.Paker, 「칼빈의 모습」 김재준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5), p. 52.

168) Inst., I. v. 4.

169) T. H. L. Parker, op. cit., p. 54.

는 교육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적 교사로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비추지 않는 한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칼빈은 여러 가지 저서를 통하여 그의 교육사상과 방법을 가르쳤는데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강요”이다. 이 책은 로마교회의 성경적 오류가 신교도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신학도를 위한 지침>으로 또는 <하나님의 무한한 교리의 본질>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¹⁷⁰⁾

셋째, 칼빈은 교육에 있어서 주입식 문답식과 단계적 교육을 실시하였다.¹⁷¹⁾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요리문답>은 과거의 <신앙지도서>와는 달리 목사가 묻고 어린이가 대답하는 문답식으로 되어 있다. 이 요리문답은 교회교육의 내용 뿐만 아니라 형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바른 삶의 원리와 방향을 가르친다.¹⁷²⁾ 모두 33장으로 구성된 <신앙지도서>(Instruction in Faith) 또한, 먼저 부모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되는 방법을 요구하였으며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¹⁷³⁾

넷째, 칼빈은 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를 위

170) 정정숙, op. cit., p. 146.

171) 정성구, 「칼빈주의의 사상과 삶」(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2), p. 65.

172) 정정숙, op. cit., p. 177.

173) William Boyd, History of Western Education(London : Adams and Black, 1947) p. 198.

하여 후손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며, 교회가 자녀들을 위하여 학교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대중교육의 새로운 형태를 개발한 것으로 교육사적 의의가 크다. 칼빈은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에서 세속학과에 대한 훈련은 종교의 훈련과 같이 본질적인 것임을 말하였고, 인문교육을 잘 받으면 신의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고전적인 교안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루터보다 훨씬 적극적이었다. 그는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적 지식을 높이 평가하고 이것을 각급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었다.¹⁷⁴⁾

특히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은 칼빈의 대표적인 교육방법과 그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제네바대학의 고등부(Schola Privata)는 7개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일 아래 학년이 7학년이다. 각 학년의 교과과정은 7개반으로 편성되었고 종합평가에 의한 진급이 가능하였다.¹⁷⁵⁾ 이와같은 교과과정은 라틴어, 희랍어, 문학, 논리학, 수사학

174) 정웅섭, 「기독교교육개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p. 48.

175) Class 7, 1)French-Latin 독본을 이용한 알파벳의 공부와 음절형성연습

2)Latin-French 요리문답서로 읽기연습

Class 6, 1)라틴어 거변화와 동사활용 공부 2)스피치법 3)쓰기연습

4)회화를 위한 쉬운 라틴어 문장의 반복

Class 5, 1)스피치법 2)구문의 요소 3)Virgil Bucolica 읽기 4)작문 첫 단계

Class 4. 1)라틴 구문론 계속:Cicero의 서신으로 작문과 함께 공부

2)시형론 : Ovid De Tristibus와 De Pont로 음절고 그 가치를 공부

3)그리스어 시작 : 격 변화와 동사 활용

Class 3, 1) 그리스어 문법의 체계적 학습 2)라틴어와 그리스어의 비교

3)Cicero의 편지, De Amicitie와 De Senectute를 라틴어 희랍어로 공부

4)Virgil의 Aeneas, caesar와 Isocrates의 글 읽기

Class 2, 1) 읽기 중점지도 : Livy, Xenophon, Polybius, Herodian, Homer등

2) 논리학 시작 : 명제와 삼단논법 : Cicero의 연설로부터 설명

3) 1주일 한시간씩 그리스어로 된 바울서신이나 다른사도의 편지 듣기

Class 1, 1)Melenchton의 책으로부터 조직적인 논리학 공부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신학부(Schola Publica)에서는 신학과 철학, 히브리어, 예술등을 부가하여 가르쳤다.

버틀러는 여기에 대하여 “칼빈이 제네바 대학을 건립한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제네바에 학교와 질높은 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러한 그의 관심은 인문학과와 중요성에 관한 그의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⁷⁶⁾ 이와같이 칼빈은 그의 교육활동에서 인문주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런점에서 칼빈의 교육은 오늘의 교회와 기독교 교육에 새로운 의미를 전달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루터와 칼빈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의 성서관에서의 차이는 성서교육에 영향을 주었고, 때문에 다음장에서는 루터와 칼빈의 성서교육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Cicero, Demosthenes, Homo, Virgil의 글을 통한 수사학

3)한달에 2회 연설

4) 1주일 한시간씩 그리스어로 된 바울설신이나 다른 사도의 편지 읽고, 듣기

176) J. Donard Butler,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Harpr and Row, 1962), p.41.

IV. 루터와 칼빈의 성서교육

루터와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를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에 강조를 둔것¹⁷⁷⁾에 비해 칼빈은 기록된 말씀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를 강조하는 칼빈은 성서내용중심(Bible Content-Centered)의 교육을 강조한다. 즉 성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형식이며, 이 형식을 떠나서는 그 어떤 내용의 접근도, 이해도, 전달도 불가능하다고 본다.¹⁷⁸⁾ 인간에게 성서 메시지의 수용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시의 한 측면이며 그것은 성서의 형식과 불가분하게 관계되어서 성서 메시지가 성령에 의해서 활동하게 될 때, 피교육자의 신앙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고 믿는다. 여기서 중요시 되는 것은 복음의 내용과의 만남과 대결이며 신앙의 사항인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 대한 이같은 이해는 좁은의미의 성서내용중심주의로 변질되기 쉽고 배타적이 되어 성서이외의 것은 배제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¹⁷⁹⁾ 이것은 또한 성서의 한 마디 한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는 피교육자의 필요성이나 이해력은 무시된채 성구를 무조건 암송시키거나 일정한 교리를 주입시키는데 그쳐 버린다. 내용중심주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전 존재적인

177) 카터런더 버그, 「마틴루터」 이현주 옮김(서울: 컨콜디아사, 1990), p. 36;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다. 그 다음으로 선포된 또는 발인된 말씀을 의미한다.”

178) 이정효, op. cit., p. 204.

179) 정웅섭, op. cit., p. 82.

신앙고백보다는 표면적 성서지식의 분량을 중시하게 된다.

루터의 성서이해 속에서 성서의 중심은 성서말씀이 아니라 성서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능력있는 활동자체이며, 그것의 구체적인 인격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¹⁸⁰⁾ 그리스도의 삶과 경험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이 입장은 자연히 성서와 인간과의 관계를 인간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규정하는 성서생활중심(Bible Life-Centered)의 교육을 강조한다.

이 생활중심주의 입장에서는 학습자의 경험속에서 얻어진 신앙이란 무엇이며 실제 생활속에서 성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¹⁸¹⁾ 따라서 이러한 교육은 인간의 경험전체가 교육의 범위, 학습의 교재가 되기 때문에 성서이외의 교재와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적이며 합리적이어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경험에다 과도한 중점을 둘 때, 자신의 경험밖의 것은 무시하거나 '성서에서 듣는다'는 근본적인 자세가 흐려지고 만다. 또한 성서이외의 다양한 자료의 취급 경우 인도주의나, 사회윤리등이 성서와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져버릴 위험이 있다.

180) Ibid., p. 83.

181) 이정효, op. cit., p. 205.

IV. 결 론

본 논문에서 지금까지 루터와 칼빈의 신학사상과 이를 기초로 한 교육사상을 살펴보았다.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어두운 전통속에 있었던 기독교 교육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교육 이념을 제시하므로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분수령을 맞이하는 길을 열었다.

루터와 칼빈의 기독교 교육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창조된 본래 상태로의 인간회복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새롭게 회복하는 과정을 말하며, 상실된 자아에서 '신의형상(Image Dei)'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루터와 칼빈에게 있어서 교육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봉사하는 생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개인의 지성발달은 물론, 사회에 기여함과 도덕심의 함양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루터와 칼빈의 교육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의 전영역에 적용시키는 삶의 기초를 제공하였고,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며 요람에서부터의 교육을 주장하였다. 루터와 칼빈의 교육과 실천을 통해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의 골격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루터와 칼빈은 교육의 기초를 성서에 두면서 보다 넓은 범위의 교육과정을 강조한다. 음악, 역사를 비롯하여 자연과학과 교양과목이라 불리우는 여러학과의 필요성을 말하고 특별히 성서와 관계된 고전어 및 언어를 배우

고 연구하기를 가르쳤다.

지금까지의 루터와 칼빈의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를 끝으로 오늘날의 기독교 교육에 몇가지 제안을 가져 본다.

첫째, 성서는 루터와 칼빈에게 있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들은 성서에서 복음을 발견하였고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교육의 기본으로 제시하였다. 때문에 현대교회는 진정한 성서관의 재발견의 노력들을 통해 성서에서 요구하는 참 인간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성서내용중심과 성서생활중심 교육을 보완하여 성서에서 제시되어있는 즉, 인간 서로서로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가 크리스찬 삶에로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서교육이 되기 위해 우선 교회는 성서와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성서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가져 더 발전된 신앙단계에로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성서교육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에서는 사랑의 교육방법의 강조와 더불어 훈육의 교육방법의 강조가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훈육의 교육방법위에 사랑의 강조가 요구된다. 죄를 미워하여 잘못을 징계하시나 인간을 사랑하여 몸소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사의 참 모형이 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들은 자녀교육의 책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식 교육

기관' 또는 '교회'에만 전가해서는 안되며 자녀 양육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가정에서부터 복음 말씀에의 교육을 실현시켜가야 할 것이다. 자녀교육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으로 학교를 이용하거나 교사에게 보냄은 다만 보충적인 일에 불과하다. 교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부모의 중요성에 비한다면 이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오늘날 교회 교육은 그 교육된 바가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루터와 칼빈은 무엇보다 교육의 장을 교회안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됨으로써 교회와 삶의 구체적 영역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됨을 주장한다. 기독교 교육은 교회안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단순히 사변적이지 않기 위해서 삶의 적용을 위해 내용과 그 방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또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서 인간 상실의 이 시대에 피조된 인간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의 적립과 반 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의 전체적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실 산 제물이 되리라 믿는다.

《참 고 문 헌》

1. 국내 서적

- 김남식. 「칼빈주의 연구」 서울: 백함출판사, 1977.
- 김봉수. 「교육철학사」 서울: 학문사, 1968.
- 김성식. 「루터」 서울: 지문사, 1960.
- 김이열. 「새자녀 지도법」 서울: 시조사, 1963.
- 김재만. 「교육사조사」 서울: 교육과학사, 1983.
- 김형석. 「루터의 생애와 사상」 서울: 삼성미술재단, 1979.
- 고용수. 「교회 교육론」 「기독교 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1.
- 대한기독교서회 사전편집실. 「그리스도교 대사전」 서울: 대한기독교회, 1972.
- 류형시 편역. 「기독교 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4.
- 배한국.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킨콜디아사, 1984.
- 박형룡. 「교의신학」 서울: 은성문화사, 1973.
- 안상원. 「교육사 및 교육철학」 서울: 재동문화사, 1988.
- 오인탁. 「한국교회 100년의 종교교육」 「기독교 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1.
-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 서울: 고신대출판부, 1978.
- 이영현. 「루터와 교회」 「루터연구」 서울: 킨콜디아사, 1964.
- 이장식. 「교회중심의 기독교 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9.
- .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 개혁교회의 신학과 신조의 특징」 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8.

- 이정효. 「현대성서교육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6.
- “기독교 교육신학” 「기독교교육개론」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연구소 편, 서울: 기성출판사, 1994
-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2.
- 이종윤 편. 「한국교회의 종교개혁」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2.
-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서울: 장신출판부,
1984.
- 장윤철 역. 「교회의 교육적 사명」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0.
- 전경연. 「칼빈의 신학과 사상」 서울: 신교출판사, 1970.
- 정성구. 「칼빈주의의 사상과 삶」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2.
- 정웅섭. “주일학교 교육의 역사” 「기독교교육사」 서울: 도서출판 교육
목회, 1991
- _____. 「기독교교육의 이론과실계」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_____. 「기독교 교육개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 지원용. 「루터사상의 진수」 서울: 컨콜디아사, 1986.
- _____. “루터와 칼빈의 교회관”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컨콜디아사, 1965.
- _____. 「소요리문답해설」 서울: 컨콜디아사, 1964.
- 정정숙. 「기독교교육 과정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부, 1980.
- _____. 「종교개혁자들의 종교사상」 서울: 총신대출판부, 1983.
- 차석기. 「서양교육사」 서울: 집문당, 1981.
- 차승주. 「서양교육사」 서울: 재동문화사, 1975.
- 차하룡. 「서양사총론」 서울: 탐구당, 1977.
- 최문한. 「근대사회사상사」 서울: 삼영사, 1977.
- 한기연. 「교육사」 서울: 법문사, 1965.

한신대학출판부 발행.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8.

한철하. 「고대기독교 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3.

2. 번역 서적

Buromili, G. W. 「역사신학개론」 김해연 역, 서울: 은성, 1987.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문제 역, 「기독교
강요」, 색인 1, 2, 3, 4. 서울: 해민사, 1982.

Eavey, C. B.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 신청기 역,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80.

Ferre, Neis. 「기독교 교육신학」 이정기 역, 서울: 보이스사, 1979.

Gerishy, B. A. “하나님의 선하신 거울” 「칼빈에 관한 신학논문」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편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Gonzalez, Justo L.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90.

Lohse, B. 「루터연구 입문」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Luther, Martin. 「루터선집」 지원용 편, 제4권. 서울: 컨콜디아사, 1982.

—————. 「루터선집」 지원용 편, 제5권. 서울: 컨콜디아사, 1982.

Niesel, W. 「칼빈과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Walker, W. 「기독교 교회사」 류형기 역,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2.

Wendel, F. 「칼빈의 신학서론」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
화협회, 1979.

Neve, J. L. 「기독교 교리사」 서남동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3. 외국 서적

- Atkinson, J. *The Great Light : Luther and Reformation*. Leicester : the Paternoster Press, 1968.
- Bainton, Roland H. *Here I Stand*. New York : Abingdon Press, 1950.
- Boyd, William.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London : Adams and Black, 1947.
- Bruse, G. H. *Luther as an Educator*. Minneapolis : Augsburg Pub. 1928.
- Butler, J. Donard.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 Harper and Row, 1962.
- Luther, Martin. *Luther's Work*. Edited by Jaroslav Pelikan, Hilton C. Oswald, and Helmut T. Lehmann. Vol. 4. Saint Louis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5.
- _____. *Luther's Work*. Edited by Jaroslav Pelikan, Hilton C. Oswald, and Helmut T. Lehmann. Vol. 12. Saint Louis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5.
- _____. *Luther's Work*. Edited by Jaroslav Pelikan, Hilton C. Oswald, and Helmut T. Lehmann. Vol. 19. Saint Louis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4.
- _____. *Luther's Work*. Edited by Jaroslav Pelikan, Hilton C. Oswald, and Helmut T. Lehmann. Vol. 31. Saint Louis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7.
- _____. *Luther's Work*. Edited by Jaroslav Pelikan, Hilton C. Oswald, and Helmut T. Lehmann. Vol. 34. Saint Louis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0.
- _____. *Luther's Work*. Edited by Jaroslav Pelikan, Hilton C.

Oswald, and Helmut T. Lehmann. Vol. 44. Saint Louis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0.

_____. Luther's Work. Edited by Jaroslav Pelikan, Hilton C. Oswald, and Helmut T. Lehmann. Vol. 48. Saint Louis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0.

_____. Luther's Work. Edited by Jaroslav Pelikan, Hilton C. Oswald, and Helmut T. Lehmann. Vol. 52. Saint Louis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4.

Grimm, Hardd. J. The Reformation Era. New York : The Hacmilliam, 1954.

Miller, Randolph C. The Clue to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Scribner's Sons, 1950.

Painter, F. V. N. Luther on Educator. St. Louise : concordia Reprint, 1965.

Schaff, Philip. Creed of Christendom, Vol. I. New York : Harper Brothers, 1877.

_____. History of Christian Church, Vol. VII. New York : Harper Brothers, 1877.

Schweirt, E. G. Luther and His Time. Missouri: Concorda, 1950.

4. 정기간행물

김의환. "칼빈주의 교회관" 「신학지남」 제42권(1975. 가을호)

지원용. "루터의 교육관" 「기독교 교육」 제 7호(1965. 3)

허건. "루터의 개혁운동과 교회관 발전에 대한 고찰" 「침신논집」 제7집(1984. 4)